

웅진코웨이, 수처리기업 그린엔텍 인수

중국 이어 국내 화장품 시장 진출도 ... 고부가 신 성장동력 확보 박차

웅진코웨이가 수처리기업 그린엔텍을 인수하고 국내 화장품 시장에 전격 진출하는 등 고부가 성장동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웅진코웨이는 수처리 엔지니어링 전문기업인 그린엔텍을 281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2월19일 발표했다.

2009년 271억원을 기록한 수처리 사업부문의 매출을 2010년에는 사업 다각화와 해외 진출로 800억원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여기에 국내 화장품 시장 진출을 공식 선언하고 2014년까지 화장품 사업에서 매출 2000억원을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2010년 9월을 목표로 브랜드 및 제품을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문 화장품 제조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생산기반을 확보할 예정이다.

웅진코웨이는 이미 중국 화장품 시장에 진출해 2009년 282억원의 매출을 올린 바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2/19>